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3호 [무제 제25426호] 주제105(2016)년 10월 9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과 외국의 단체,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장전 71살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일조우호 히르시마현민의 회와 나이제리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선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가 8일 등의 글말이 띄어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9월 23일부터 25 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위원장께서 대동강주사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을 조선의 의료기공장의 본보기, 이, 때두산세력조선선선협회 인터넷포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회위생발사장을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의 통일자전거행진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우리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기에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저희 청년단체들은 먼저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함경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비롯하여 나라의 크고작은 정사를 보살피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들의 통일자전거행진에 맞추고 또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응심으로 되는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평양-관동철도철도자전거행진을 발기하였을 사실 지난날 민족적광심이 남아있다면 모두 다 손잡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통일의 대풍을 일으키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호소를 앞장에서 받들어 온 민족이 단결하여 70여년에 걸치는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것을 내외에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지가 반영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출생의 뜻을 올린 우리들은 분열의 상징 판문점까지 힘차게 달려나서 조국통일은 지구상 그 어디에 살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외면할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통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의 자신임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더우기 판문점에 모셔진 김일성주석님의 통일필리미 앞에서 저희들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한결같은 정열과 애정을 다하여 헌신할것을 맹목적으로 단결한 동포들의 영부님들의 엄격하고 간곡한 통일유언을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았습시다. 조국에 제후한 나날은 비록 짧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덕에 지적자랑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벅찬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세상에 제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높고 모신 88만 우리 겨레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굳게 확인하였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 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참가자일동
주제105(2016)년 10월 5일 평양

북변땅에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떠세우자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진화위원회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놀라운 기적과 위훈의 소식이 련이어 전해져 우리 천만군민의 입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이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살림집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와 기초공구 크리치기가 이미 끝난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벽체축조와 총막공사, 벽체미장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지붕공사, 온돌공사도 추진되어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이와 함께 8일현재까지 피해복구전선에 필요한 세멘트의 60%가 현지에서 도착하고 강재를 비롯한 건설용자재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추세철도운수부문과 목재운수부문에서도 제기되는 물품을 제때에 수송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력기하여 세계를 주름잡으며 총력승리를 쟁취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전진열을 힘있게 파시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의 호소문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피해지역에 달려있는 인민군장병들과 건설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모에 나선 돌격병사의 비상한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살림집건설과 파편전력복구, 통신망, 철길, 도로복구전투에서 분조한 다투는 힘찬 투쟁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인민군장병들과 건설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련속공격, 계속혁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혁혁한 성과 이룩의 우렁찬 등용을 울리며 중산돌격진을 벌여 피해복구전선에 필요한 자재생산성과를 날마다 확대하고있다. 평양시와 남포시, 각 도지방 산업공장에서 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출생문과 출생문물, 향문과 향문물 등 말은 건설자재를 기본소재로 생산하여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회위원회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철도성과 목재운성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수송선적이나 피해복구속도라는 비상한 사각을 안고 과감한 협동작전을 벌임으로써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품수송에서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철도성에서는 유익사명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는데 힘과 함께 기관차와 화차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수송조치와 지휘를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짜고들어 물품수송에서 큰 진전을 가져오고있다. 전선수송을 보장하던 전회의 용사들처럼 평양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진사들이 피해복구전투장으로 매일 어마어마한 물품을 적송하고 원상 복구와 홍남항으로 세멘트 배수선차량을 수송하는 전에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평전철도국에서도 물동위급량이 늘어났는데 맞게 수송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새차제 지퍼를 청진함에 도착한 물품을 비롯한 철도국내에서 진행되는 물품수송에서 중추의 기적적승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목재운성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높은 중충실적으로 당중앙

조선의 북변 땅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없고 가질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대동맥과 결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롭게 단결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래와 대동맥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당중앙의 호소파라 북부전선에서 포다시 세인을 날래게 전회 위부장조의 눈부신 대건설전투가 고조를 이루는 가운데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의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 각 사회단체들이 마련하여 보내는 지원물자들이 있을 때부터 피해지역으로 계속 들어오고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북부전선지원열풍의 지원사업에 헌신자들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하여 엄격한 대대난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때두산세력위원회의 만고의 항쟁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들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세대를 역세게 지거가는 북변땅의 전진선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식량과 생활필수품, 세멘트와 연유 등 수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북부전선으로 보내주고있다. 유원지총국과 국가관광총국, 인민봉사총국과 대외문화위원회회의 일군들과 총원들은 피해지역 인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북부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에 순결과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련하는 한결한결의 지원물자들이 우리의 입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자강도에서 건구류를 실은 화물열차 출발

자강도에서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인 북부피해복구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응원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의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4일 출생문, 향문, 문물을 비롯한 건구류들을 가득 실은 첫 화물열차를 전회위원회의 기적적승리를 축하하는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나보내었다. 도에서는 시, 군들과 도립업관리국이며 민선, 경동성사업소들이 분신되어있는 조건에 맞게 여러 철도역들에 화차배치를 앞장서며 합리적으로 하여 화차미부품시간을 줄이고 출발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받아들인 후, 조선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건구류들을 실는 요구에 맞게 철적으로 생산하였다. 도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곤고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재해지역을 모듬당시대의 선경으로 선지개혁시키기 위한 투쟁이 밀어지고있는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줄 건구류들을 실는 자강도에서 화물열차에 옮겨질 것이다. 자강도립관리국이며 민선, 경동성사업소, 강계시, 만포시, 전현군, 우시군, 조선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건구류들을 실는 요구에 맞게 철적으로 생산하였다. 도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곤고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재해지역을 모듬당시대의 선경으로 선지개혁시키기 위한 투쟁이 밀어지고있는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줄 건구류들을 실는 자강도에서 화물열차에 옮겨질 것이다. 자강도립관리국이며 민선, 경동성사업소, 목재가공공



—무산군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